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5. 1.(수) 08:30 < 5.1.(수) 석간 > 배포 2024. 5. 1.(수)

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 특정활동(E-7)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2년 간 시범운영
- 국민고용 지원을 위한 취업 교육 확대 및 상생 지원 등 지속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7개 직종에 한하여 허용하는 취업 비자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하였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 채용 전제 교육 프로그램 확대, 첨단항공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

**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 지원규모 확대, 자녀 학자금 등 직원 복리후생 지원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수인력 양성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였다.

담당 부서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우주항공팀	책임자	팀 장	김봉석 (044-203-4305)
		담당자	서기관	임형남 (044-203-4306)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재형 (02-2110-4070)
		담당자	사무관	황민하 (02-2110-406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